

직물용어 해설-11

* 클로케(Matelasse, Cloque)

견, 면, 모, 레이온, 아세테이트, 염화 비닐,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무늬 등의 모양이라든가 불규칙한 지렁이처럼 길게 부르튼 형상으로 부풀어 오른 표면 효과의 직물이다. 문직 이중직을 원칙으로 표경사와 표위사에는 무연사를 사용하고 이경사와 이위사에는 강연사를 사용한다. 제직 후 주름내기 정련을 하면 강연사가 줄어들어 표사와 이사가 접결된 곳을 기점으로 하여 줄어들지 않은 표의 조직이 부풀어 오른다. 강연사 대신에 열수축이 큰 염화비닐섬유를 이경사, 이위사로 사용하여 제직후 열처리를 하여 이사를 열 수축시켜 부풀어오르는 효과를 일으킨 것도 많다. 경이중직이라든가 위이중직으로 제직하여 별도 경사라든가 별도 위사로 하여 염화비닐섬유 또는 고무심 제직사를 사용하여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것도 있다. 금속사를 짜 넣은 것도 많다. 드레시한 직물이다. 색조도 흑색 외에 고상한 것이 많다. 일본 옷으로는 교결직(고우기쓰오리)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마트라세(Matelasse), 프랑스에서 클로케(Cloque), 영국에서 블리스터 클로스(Blister cloth)라고 한다. Cloque, Blister는 모두 물에 부풀려진 의미이다 Matelasse는 프랑스어의 Matelas(침대 깔개, 매트레스의 의미)로부터 유래되었다. 이것은 물건을 옆에 두는 장소라든가 침상이라든가를 의미하는 아라비아어의 Matrah에 어원이 있다. 교결직을 [고우기쓰오리]라고 부르는 것은 속어로써 바르게는 [고우게치]이다. 교결은 협결(판체(板締)의 방염(防染))과 더불어 3결의 하나로써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염법이다. 현대의 흘치기에 해당한다. 교결직의 직물 면의 효과가 흘치기 직물의 효과에 유사한 점으로부터 이름 붙여진 것일 것이다. 이브닝 드레스, 칵테일 드레스, 여성용 허리띠 등으로 사용한다.

* 타월(Terry Cloth)

면, 레이온, 아마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올가미 경사로써 편면이라든가 양면에 올가미를 짜 넣은 것이다. 지경사와 올가미 경사와 위사로

써 제작한다. 경사 빔은 지경사를 감은 것과 올가미 경사를 권취한 것을 사용한다. 지경사는 강하게 당기고 올가미 경사는 느슨하게 당긴다. 우선 짜여지는 곳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서 위사를 2올 타입하여 가직 한다. 다음에 또 한 올을 타입한다. 3올 째를 타입할 때에 강하게 성타하여 가직한 위사 모두를 직구까지 타입 한다. 지경사는 강하게 당겨 있기 때문에 느슨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3올의 위사는 조직된 채로 지경사의 위를 미끌리어 직구로 밀려간다. 그런데 올가미 경사의 쪽은 느슨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3올의 위사와 조합된 채로 직구까지 미끌려 간다. 그리고 거의 직구와 가직한 첫 번째 올의 위사와의 사이의 거리만큼 길이가 남아서 올가미 상태로 된다. 평직이라던가 능직으로써 가로 줄무늬나 세로 줄무늬를 넣기도 하고 올가미로써 무늬를 나타내기도 한다. 도비라던가 자카드로써 표리 반대로 올가미를 만들어 올가미로써 모양을 나타낸 것을 무늬 타월이라고 한다. 타월의 지조직은 평직이라던가 능직이다. 타월의 흡수성과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올가미 경사에는 지경사보다도 부드러운 꼬임의 감염사를 사용한다.

2올이라던가 3올의 올가미 경사를 인접 배열하여 2중, 3중의 올가미를 짜내는 것을 각각 2올 모, 3올 모라고 한다. 한 올의 올가미만의 것은 1올 모라고 한다. 백색 외에 무지염도 있다. 사염으로써 폭이 넓은 줄무늬라던가 격자 모양을 나타낸 것도 많다. 천의 편면의 올가미를 전모기로써 절개하여 벨빋과 같게 하여 날염한 것도 있다. 시어링 타월이라고도 한다. Terry는 인장이라고 하는 의미의 프랑스어 tire에서 유래한다. 타월의 올가미는 보통의 천으로부터 갈고리라던가 어떤 것으로 여기 저기에서 실을 뽑아 내서 만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지어졌을 것이다. 타월의 영어 towel은 스페인 어의 toalla로부터 유래한다. 목욕천의 의미이다. 테리직의 타월을 특히 터키시 타월(Turkish Towel)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 용도는 주로 타월, 욕의 침대덮개, 깔개, 여름철 깔개 등에 사용한다.

* 타탄(Tartan)

모, 아크릴,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비닐론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원래 영어의 스코틀랜드의 고지방의 주민이 의류로 사용하여 온 무늬가 큰

격자무늬의 모직물이다. 조직은 2/2 우능으로써 격자 무늬의 무늬와 배색에 특징이 있다. 남자는 kilt라고 하는 짧은 하의(하까마)와 plaid라고 하는 어깨에 걸치는 의류로써 사용하고 여성은 스커트나 드레스로 사용한다. 격자 무늬는 경위사의 줄무늬 비율이 같은 것이 특징이다. 배합색은 2색의 것이 있으나 3색 이상의 것도 많다. 줄무늬는 크라 타탄(clan tartan)이 이용된다.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올타리(clan)별로 무늬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130여종의 기본 염색이 있다. 타탄이 격자 무늬이기 때문에 타탄 체크라고도 한다.

또 스코틀랜드에서 프레이드(plaid)라고 하는 의류에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부터 타탄 프레이드(tartan plaid)라고도 한다. 주로 스커트용으로 사용한다.

* 타폴린(Tarpaulin)

방수포용 범포의 일종

* 풍통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모, 아크릴, 비닐론 등을 사용한 특수한 경위 이중직이다. 표의 경위사와 리의 경위사를 개소 개소에서 표리 반대로 반복하여 제작한다. 보통의 경위 이중직에서는 표경사와 표위사는 일반적으로 표조직으로 제작하고 이경사와 이위사는 보통 이조직으로 제작하지만 풍통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이경사와 이위사가 표면으로 나와 조직되고 그것이 정확히 뒷면에 다다르는 곳에서 표경사와 표위사가 뒷면의 천을 제작하게끔 된다. 풍통 원단을 절개하여 보면 표와 리의 직물이 접결된 곳이 봉목으로 된 작은 포대가 많이 만들어져 보인다. 고급 여성 복지, 고급 일본 옷 등으로 사용한다.

* 트로피칼(Tropical)

모,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비닐론,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작한 것으로 트로로 약칭한다. 팜 비치에 유사하게 보이는 소모직물이다. 무게는 6~12온스 정도이다. 클리어 커트 마무리한다. 직물면이 평활하고 사각사각한 촉감이다. 원모염이라던가 톱염색 또는 필염으로 한다. 무지가 많으나 가로 무늬도 적지 않다. 열대지방에서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까칠까칠한 감촉의 소모 직물로써 평직으로 제작한다. 얇고 가볍고 풍부하여 여름용

옷에 적합하다. 최근에는 화학섬유 혼방사를 사용한 것도 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피서지의 이름을 따서 팜비치(Palm Beach)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직물은 더우면 아무 곳에서나 입을 수 있는 직물을 말하는 의미로써 주로 여름철용 얇은 소모직물이거나 이에 유사한 직물을 말하는데 원래는 경위사에 40~60's 정도의 합사를 사용하였으며 밀도는 그다지 많지 않게 하여 평직으로 제작하여 포털과 같이 가공한다. 염색은 선염, 후염 모두 있지만 주로 무지물이 많고 줄 무늬 또는 체크 무늬도 사용된다. 종류로는 평 트로피칼(Plain Tropical), 모헤어 트로피칼(Mohair Tropical), 혼합 트로피칼(Mixture Tropical) 등이 있다. 성근 평조직의 슈트용 평직물으로써 가벼운 모직물을 말하기도 하고 경위사는 Ne 2/60 또는 그 이상이다. 열대지방 또는 여름철의 의류에 좋다. 여름 신사복, 투피스, 원피스, 스커트 등으로 사용한다. 트로피칼류에 헤어 클로스(hair cloth)라고 하는 것이 있다. 원래 산양류의 수모를 단용 또는 혼방한 제직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한 얇은 촉감이 딱딱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현재는 길이가 불규칙하나 쥐색의 줄무늬가 백색 또는 가로 세로로 교호하게 보이는 색상의 것이 많다. 헤어 클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직물에는 심지로 하는 것이 있다. 올바르게는 마소직(馬巢織), 속칭 모심지라고 한다. 경사에 면단사로 하고 위사에 말의 꼬리털을 넣어 제작한다. 조직은 평직이라던가 사문직이다. 말의 꼬리털의 색에 맞추어 전부를 흑색으로 염색한 것도 있다.

* 트리코틴(Tricotine)

모, 레이온,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 면,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제작하는데 주로 경사에 통상 2/80Nm, 2/68Nm, 2/54Nm의 쌍사 소모사, 위사에 45Nm, 50Nm, 68Nm 단사 또는 2/54Nm 쌍사 등의 소모사를 사용하여 13매 종광의 $\frac{3}{1} \frac{3}{1} \frac{1}{2} \frac{1}{1}$ 등의 능으로 제작한다. 능선은 확실하게 나 있고 65°의 경사로써 우능으로 선다. 이러한 능선은 2개의 가는 능선이 밀접하여 굵은 올의 하나의 능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중축 개버딘이라고도 한다. 이면에도 능선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면의 능선은 이중으로 겹쳐져 있지 않다. 조직은 치밀하지

만 조직의 관계로써 다소 신축성이 있다. 직물 면은 클리어 커트로 마무리한다. 굵고 힘찬 능선이 있기 때문에 까칠까칠한 촉감이다. 봉제성이 좋다. 튼튼함을 갖게 하는 직물이다. Tricotine은 편성한다(to knit)고 하는 의미의 프랑스어 tricoter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직물에 메리야스와 같은 신축성이라던가 풍미가 있다는 점에서 붙여진 것일 것이다. 군복, 군용 외투, 신사복, 외투, 슬랙스, 운동복 등으로 사용한다.

* 트위드(Tweed)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리넨, 라미, 면, 모, 비닐론,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트위드는 홈스펀에 아주 근사한 방모 직물로써 경위사에 태번수의 실을 사용하여 2/2 능으로 제작한다. 바닥은 두껍고 외관, 조직, 촉감 모두 거칠고 튼튼한 직물이다. 홈스펀이 평직인 것에 대하여 트위드는 능직인 점이 다를 뿐 사용하는 실, 외관, 촉감은 아주 근사하고 트위드라고 불려지는 것에 평직인 것이 적지 않다.

모직물 트위드는 모두 제작한 후 약간 축융하여 수세, 건조 후 전모, 증융 및 압융하여 소위 트위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줄무늬라던가 조직점이 희미하지 않고 비교적 확실하다. 광택을 없앤 권축 비스코스 스프나 아세테이트 스프 위 트위드 외에 아크릴 등의 합성섬유를 모라던가 레이온 스프를 혼방한 것을 이용한 제품도 생산되고 있다.

트위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국경을 흐르는 트위드 강(tweed river)의 연안 지방이 원산지이다. 수방한 방모사로 사문직으로 제작한 모직물이었다. 산지에서는 이것을 당시 four leaf twill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나 현지 스코틀랜드 인은 twill을 잘못 알고 tweel로 쓰고 있었다. 이러한 직물을 판매했던 모직 상인은 강의 이름과 달랐던 트윌의 철자로부터 tweed를 직물의 명칭으로 하였다고 한다. 신사복, 리조트 풍의 상의 스커트, 드레스, 바지, 운동복 등에 사용한다.

* 티킹(Ticking)

면, 리넨, 레이온 등을 사용하지만 주로 면제품이 가장 많다. 두껍고 딱딱하며 튼튼한 면직물이다. 제작사는 굵은 변수라던가 30's 정도의 단사를 사용한다. 조

직은 5매 주자라던가 3매 능직 또는 삼능직이다. 평직도 있다. 흑색, 적색, 감색, 쥐색 등의 염색사로써 봉호(棒縞)를 나타낸다. 평직은 하급품으로 조포의 원단에 봉호를 날염하고 두껍게 가호 하여 칼렌더하여 마무리한 것이 많다. 방수, 방축 마무리를 실시한 것도 있다. 자카드 무늬를 나타낸 것을 다마스크 티킹(damask ticking)이라고 한다. Tick는 이부자리를 말함. 어원은 상자 또는 덮는 천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theca이다. 요나 방석의 옆, 베게 커버, 실내 장식 등으로 사용한다.

* 파이유(Faille)

견,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비닐론,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견직물로써 경사에 무연이라던가 오건던 꼬임의 본연의 견사를 위사에 감연의 반연견사라던가 감연의 면사를 사용하고 사염하여 제작한 것이다. 위두둑이 있는 직물로써 경사 4~6올마다 특별한 실을 한 올씩 배열하여 조직을 튼튼하게 한 경사 밀도가 큰 견직물 또는 이것과 비슷하게 직물의 광택이 많고 밝고 굵은 실을 위사로 사용하여 평조직으로 제작한 것이며 그로스 그레인 보다 두둑은 평면적이고 직물은 타이트니스와 드레이프성이 충분하여 봉제에도 적합하다. 경사의 밀도를 크게 하여 위사를 같은 개구에 2올 이상 타입 하기 때문에 횡무가 생긴다. 이량은 그로스 그레인에 비하여 섬세하다. 유연한 촉감의 직물이다. 현재는 아세테이트, 비스나 큐프라 기타 합성섬유 파일이 많다. 국내에서는 통상 파일이라고 한다.

* 파일 조직(Faille Weave) : 파일 직물에 사용되는 넓은 뜻의 명칭이며 경사는 견 또는 면사를 사용하며 위사는 견과 레이온이 사용된다. 리브 조직과 리브를 조합한 조직이 사용되며 경사는 직물의 뒷면과 표면에서 위사에 완전히 덮여진다. 이러한 조직들은 벵갈인(Bengaline), 모자, 띠, 포플린, 랩의 형태로 쓰여진다.

용도는 드레스, 스틀, 리본, 슈트, 복지 등으로 사용한다.

* 팔레스 크레이프(Palace Crepe)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팔레스 크레이프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견을 말한다. 경사에 무연사, 위사에 좌우 강연사를 2올씩 교호로 타입하여 평직으로 제작한 측면이다. 플랫 크레이프나 크레이프 드 신과 아주 흡사한 직물

이지만 위사의 꼬임 회수는 이들보다 약한 2,000~2,500T/M으로써 팔레스 꼬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경사 밀도는 플랫 크레이프라던가 크레이프 드 신과 마찬가지로 위사 밀도보다도 많게 하고 또 경사 장력을 강하게 하여 제작한다. 그러니까 위사의 꼬임이 비교적 적은 꼬임으로 주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언뜻 보아 중목우이중과 촉감이 비슷하다. 52.5~60g 정도의 것이 많다. 팔레스 크레이프에 주자지라던가 사문지 등으로써 모양을 나타낸 것을 무늬 팔레스(자카드 팔레스)라고도 한다. 경위 모두 생사로 만든 것 외에 경생사, 위인견의 교직도 있다. 경위 모두 인견을 사용한 인견 직물의 자카드 팔레스는 위사에 1,000~1,700T/M 정도의 편 약연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인견 평 팔레스 무늬를 짜서 나타낸 것이다. 경의 무늬 편팔레스에 해당한다.